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3월 24일(주일) 제1238호

자신, 이웃, 하나님과 '관계의 기쁨'



사진은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 참석자들.

2019 회복축제 오늘(24일) 사전등록 마감 4월 3일부터 5일까지 서빙고 본당 및 부속실

2019 회복축제 사전등록이 오늘(24일) 마감된다. 아직 회복축제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성도들은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참가신청은 교회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와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원이다. 오늘까지 등록하거나 10인 이상 단체로 등록하면 회비를 1만 원을 할인해준다. 자

신, 이웃,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나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을 알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2019 회복축제는 '관계의 기쁨'을 주제로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및 부속실에서 막 오른다. 박성심 사모(심리치료사), 채규만 교수(중독치료전문가), 박성덕

소장(연리지부부가족연구소), 박재연 소장(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 등 치유와 회복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4월 3일 이기원 목사 '성숙한 관계의 기술', 박성심 사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엮는 YES', 4일 박재연 소장 '환경보다 중요한 과제', 채규만 교수 '중독의 심리적 기제와 임마누엘 치유기법', 5일 박성덕 소장 '연합의 기쁨', 조병민 목사 '성경적 회복을 위한 자기대면'을 주제로 강의한다.

주제별 선택강의도 풍성하다. 이관직 교수(총

신대 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이지선 교수(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남윤영 박사(정신과전문의), 조병민 목사(지구촌교회 상담센터장), 이정환 목사(양재 상담센터), 최용준 목사(서빙고 상담센터), 성주명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김지홍 교수(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구인유 집사(온누리 회복사역 기쁨의샘), 장순우 박사(정신과 전문의)가 강의와 실습을 함께 진행한다.

문의: 02-3215-3355, 3532

/ 권한송 기자 kcs123@onnuri.org

CGNTV 개국 14주년!

3월 29일 감사예배, 31일 축하행사

CGNTV가 개국 14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축하행사를 개최한다.

CGNTV 개국 14주년 감사예배는 오는 3월 29일(금) 오전 8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드린다. 감사예배에서는 CGNTV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미디어 선교사의 비전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CGNTV 개국 14주년 축하행사는 3월 31일(주일)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일제히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CGNTV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위한 'CGNTV 유튜브 채널 구독 이벤트'가 실시된다.

CGNTV 개국 14주년 특집다큐멘터리 '낮은 곳에서 피는 봄'도 방영한다. 3.1운동과 기독교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한 뜻 깊은 다큐멘터리다. 오는 3월 31

일 오전 10시 30분 CGNTV에서 볼 수 있다.

CGNTV 대표이사 이용경 장로는 "늘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앞으로도 CGNTV 임직원들은 미디어선교사의 사명을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사역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올해 CGNTV는 가정예배, 동성애 문제, 기독교변증 등의 콘텐츠 제작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고난주간 심야예배 4월 15~19일 국내 캠퍼스

2019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4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저녁 9시에 드린다. 설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다. CGNTV는 고난주간 심야예배 실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

고난주간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저녁 6시 이후 모임을 삼가고 고난주간 심야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매일 한 끼 이상 금식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한 금액은 헌금한다. 미디어(TV, 인터넷, 영화, 게임 등)금식도 병행한다. 고난주간 심야예배에 올 때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해야 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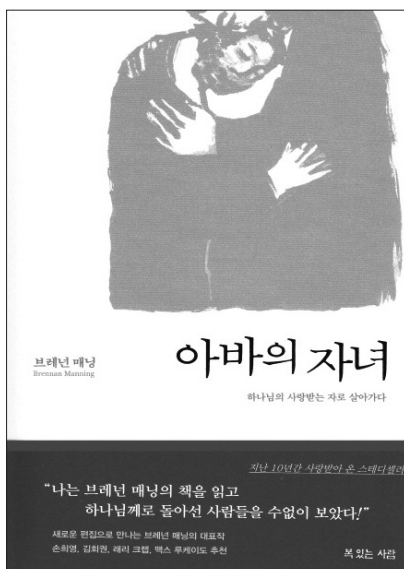




책 읽어주는 목사

거짓된 자아 VS 사랑받는 자아

〈아바의 자녀〉



〈아바의 자녀〉

브레넌 매닝 저 | 복있는 사람 | 10,000원

영혼의 스승 브레넌 매닝의 역작 〈아바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싶은 구도자(Seekers)들에게 일독을 권해 볼 만한 책이다. 그의 책은 문장 한 줄 한 줄에 저자의 영적 갈급함이 녹아있어 그 어떤 책들보다 영혼의 깊은 내면세계를 보여준다.

이 책의 저자 매닝은 ‘나’라는 존재에는 ‘

거짓된 자아’와 ‘사랑받는 자아’가 있다고 전제한다. 거짓된 자아는 세상 속에서 얽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다. 자기중심적이며, 탐욕과 욕망에 깊이 빠져있는 자아이며, 성공과 권력지향적인 자아의 총 집합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가치 있고 사랑받는 자아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욕구들은 항상 가변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을 소유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존감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그러한 것들을 상실해 버렸을 때 나의 삶은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대인들에게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었는데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삶이 무의미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짓된 자아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거짓된 자아는 수용과 인정에 늘 목말라 한다. 거짓된 자아는 자기노력과 대인관계에서 정체를 찾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유력한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한다.

거짓된 자아 속에서는 참된 영적 만족과 친밀함을 느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허구이며, 죄의 본성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랑받는 자아’는 이 책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참된 자아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참된 영

혼의 모습이기도 하다. 사랑받는 자아는 거짓된 자아의 특징과 다르게 나타난다. 사랑받는 자아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세상의 성공과 출세여부를 떠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에 정초하고 있다. 곧 인간의 사랑에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시작되는 관계이다. 매닝은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복음과 은혜의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죄와 연약함을 알면서도 용납하신다. ‘용납’이란 그 사람의 과거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시고 사랑해주시며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다. 복음을 통해 아바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종과 문화, 계층을 초월해 동일하게 베풀어주시는 참된 용서의 사랑이다.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나를 떠나지 않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영혼의 깊이를 더해주는 매닝의 〈아바의 자녀〉는 오늘날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세속화에 오염되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현대인들과 물질만능주의와 성공주의에 도취되어 분주하고 쫓기는 삶만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일침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거짓된 자아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교회와 순도임에서도 소속감을 못 느끼고 방황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거짓된 자아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영혼의 진정성 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짓된 자아는 공동체 안에서 방어기제와 공격적 성향을 만들고, 자신의 인정욕구를 주장하는 모습만 부추기기 때문이다. 내 신앙에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잃어버린 정체성과 참된 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겉만 딱딱한 갑각류 크리스천의 모습에서 벗어나 진실 되고 참된 자아의 모습으로 교제를 할 때 영적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다. 사순절 기간에 〈아바의 자녀〉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원해 본다.



김상수 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Q&A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교회에 안 나가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답: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말할 때 그 ‘착함’의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얼마나 착해야 착하게 사는 것인지 가늠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람마다 착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안 하면 착한 것인가? 화를 내지 않으면 착한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잘 도우면 착한 것인가?

세상의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는 비신자들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강조하는 “죄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에 의구심을 품으며 반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문을 갖는 이들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어야 한다.

먼저 세상에서는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으

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한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욕심과 탐심, 미움과 시기, 질투 등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상태’를 죄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롬 1:19-21). 그렇게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셨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 한 분을 보내주셨다. 온 세상의 주

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보여주신 분, 하나님이 죄 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여주신 분, 부활하시어 천국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6-17).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야말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인생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기준으로 착하게 사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천국은 장차 가야 할 장소가 아니라 현재에서 풍성한 영생을 누리는 장소가 된다. 그러한 축복이 당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문장원 전도사
(인천 온누리교회)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한나의 기도

삼상 1:9~18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개인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와 역사의 고통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중 하나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 대답이 가능하지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개인적인 고통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 한 나라의 고통을 품는 기도로 변화시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때는 자신만의 문제를 해결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 한 역사의 고통과 상처까지 치유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역사의 어둠을 거둬내고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이유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개인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고통, 역사의 고통을 치유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던 고통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에게 주어진 고통은 역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고통에는 한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이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 시대, 한 역사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편의 사랑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고통

한나의 고통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입니다. 한나가 이 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했습니다. 한나가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의 사랑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만 채워지는 빈자리였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경건한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과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의 낮은 윤리적 수준에서는 자녀 생산을 위해 두 번째 아내를 들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 브닌나의 이름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뜻입니다. 실제 엘가나는 브닌나를 통해 얻은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아들딸들에게 제물로 드릴 고기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삼상 1:4-5).

한나는 남편에게 두 배의 사랑을 받았습다. 남편에게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한나에게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겨난 고통은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사랑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가 쓴 ‘도르레’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축복의 잔을 가지고 인간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시다가 다 부어질 무렵 중단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면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취해 살까봐 안식이 없는 나머지를 남겨두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안식 없음을 그 나머지로 남겨두시고, 그것을 도르레가 되게 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전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 고통은 도르레가 되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전달하게 했던 것입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하나님께 더 빨리 가까이 나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당시 문화에서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였습니다. 한나는 그 고통이라는 도르레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남편의 사랑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고통을 오직 하나님께 쏟아 내다

둘째, 한나는 브닌나의 괴롭힘에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토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되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6-7절).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힌 것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브닌나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나를 괴롭히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브닌나에게 대항하지 않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정과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주도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교만해져서 아이를 낳은 후에 사리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라는 자신을 무시하는 하갈을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창 16:5).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은 점잖게 번역했지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당신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보자”는 뜻입니다. 부부가 강렬하게 싸울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갈에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어느 정도 괴롭혔다면 하갈이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이긴 것입니다. 한나는 사라와 정반대였습니다. 한나는 브닌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사랑스러운’, ‘매력적인’입니다. 한나는 이름에 합당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한

나는 브닌나와 다투지 않고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브닌나에게 받은 괴로움을 되갚아주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소? 왜 먹지 않고 있소?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소?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8절).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소?”라는 말을 보면 엘가나는 한나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나는 남편에게 쏟아 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괴로움을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 냈습니다.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 낸 것입니다’(15절).

‘심정을 쏟아 냈다’는 말의 원문은 ‘영혼을 쏟아 냈다’는 의미입니다. 영혼에 담아둘 수 없고, 담아두어도 안 되는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께 쏟아 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토하게 됩니다. 쏟아 내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 죄가 들어오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 분노, 상처, 괴로움은 우리 영혼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육체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영혼의 통곡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 냈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 이면에 있었던 비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괴로움을 토해낸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통을 쏟아 내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에 대하여 욕이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고통과 괴로움을 쏟아 내며 서원기도를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통에 대한 토로, 고통에 대한 원망, 한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원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10-11절). (13면에 계속)

“내가 왜 자해를 하나고요?”

우리나라 중학생 7.9%, 고등학생 6.4% 자해 경험
어른들(부모, 교사, 목회자)의 적절하고 건강한 대처가 약

“너 왜 그랬어? 진짜 죽으려고 그랬어?”

“나도 왜 그런지 몰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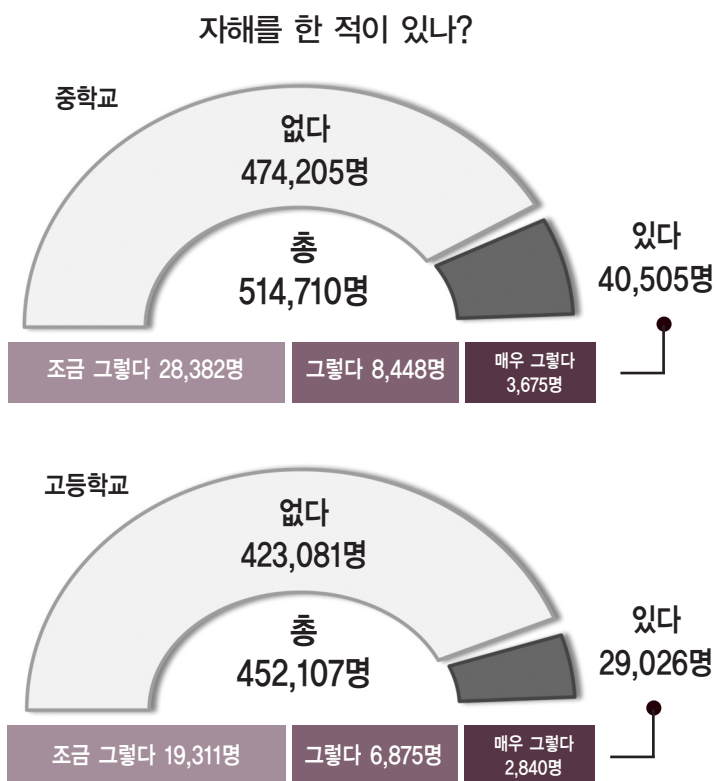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들은 왜 스스로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청소년들은 순간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감정을 일으키는 호르몬 수치가 아동기에 비해 200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전두엽 발달은 느린 편이다. 그래서 감정과 행동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를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해를 하는 이유는 심리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다. “도와 달라”는 외침을 자해라는 극단적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른들(부모, 교사, 목회자)이 자해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보내는 진짜 메시지를 알아채고, 적절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김영선, 홍하영 기자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중 자해 경험 조사

자료: 서경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교육부



청소년 자해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이나 반항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누가 봐도 밝고, 예의도 바르고, 성적이 좋은 청소년들도 자해를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해 청소년들은 “마음이 힘들면 자해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도 청소년들의 자해는 ‘살고 싶다는 신호’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우울하고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해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함께 해결해줄 어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해 교육부가 우리나라 청소년 7만 명이 자해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했는데 중학생 51만4,710명 중에서 4만5,055명(7.9%)이 ‘자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은 45만2,107명 중에서 2만9,026명(6.4%)이 ‘자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관계자들은 실제로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청소년 자해에 대한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자해’를 검색하면 6만여 개의 게시물이 나온다. 연관 검색어로 #우울 #상당 #고민 #자살 #자해하는 사람이나쁜 사람입니다 등 다양한 해시태그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 자해경험을 나누는 자해계(자해를

공유하는 SNS 계정)들은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자해계는 자극적인 사진과 문구로 청소년들의 자해를 부추기는 악의 온상일까? 이에 대해 자해러(자해계를 운영하는 청소년)들은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공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몇몇 자해러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아봤다. 그들은 “SNS에 자해를 공유하는 행위를 사춘기의 작은 일탈, 관심을 끌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고 못 박으면서 “SNS는 소통의 창구일 뿐이며, 얼굴조차 모르는 이들에게 힘든 일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어서 자해계를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N학생(16세)은 “너무 힘든데 털어 놓을 데가 없어서 SNS에 자해 사진을 공유한다”고 했다. J학생(16세)도 “자해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랬는데 가족들은 나무라기만 해서 그나마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해 경험을 나눈다”고 털어놨다.

자해를 유일한 탈출구로 인식

흑자들은 이러한 세태를 두고 ‘패션자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남들에게 자랑할 용도로 자해를 선택한다고 비난한다. 언론 역시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해놀이’가 유행한다는 보도를 쏟아내며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왜곡된 발상이다.

청소년들이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단순히 관심을 받기 위해 자해를 선택하는 것일까? 이러한 이유로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은 전체 자해 청소년의 4%도 되지 않는다.

손꼽히는 청소년 자해 전문가 마이클 홀랜더 교수는 청소년 자해 원인으로 세 가지 요인을 꼽았다. 첫째, 압도적인 감정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거나 혼란스러운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둘째, 무감각하고 공허한 존재라는 끔찍한 느낌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셋째, 자신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자해를 선택한다고 예상했다.

중학교 3학년인 J학생은 양 손과 발목이 흉터투성이다. 전부 스스로 낸 상처들이다. J학생은 부모님과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해를 시도한다.

“솔직히 자해를 끊고 싶는데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칼을 들고 몸을 그을 때마다 제가 우울한 게 조금씩 사라져요. 하고나면 아파서 다른 생각이 안 나거든요. 자해는 제가 우울한 걸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J학생이 자해를 하는 이유는 상처가 나면 온 신경이 상처에 집중돼 우울한 감정을 순간적으로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늦은 밤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자해를 한다. 부모님도 J학생이 자해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치거나 화를 낼 뿐 위로해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학교 선생님과 반 친구들도 J학생이 자해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주변 친구들 중에도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다.

“상처를 보고 ‘나는 더 심했었어’라는 애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자해를 하는 애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서 진짜 밝고,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는데 자해를 하더라고요”

N학생(16세)의 왼팔에는 자해의 흔적이 가득 차 있다. 자해를 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다. N학생은 불안하거나 너무 힘든데 털어 놓을 곳이 없을 때 자해를 한다.

“자해를 처음 시작한건 친구가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했을 때였어요. 불안하고 떨리고 무서워서 손으로 팔을 긁었어요”

N학생은 그날 이후 자해의 늪에 빠졌다. 지금은 1~2주에 한 번씩 자해를 하고 있다. 팔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손가락 끝을 바늘로 꺾매기도 한다. 자해 횟수를 줄이고 싶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한다.

“자해를 하면 안 되는걸 아는 데도 끊기가



청소년 자해 용어

자해계: 자해 사진을 공유하는 SNS 계정

자해러: 자해계를 운영하는 사람들

민모션: 소리내어 울고 싶지만 울지 못한다는 의미

스마일마크: 웃는게 웃는게 아니라는 의미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의 줄임말

비타민, 도루코: 커터칼 브랜드, 비타민커터와 도루코커터가 있다
사혈자해: 몸에서 피를 뽑는 자해의 일종, 주사기로 피를 뽑는 경우가 많다

지우개 자해: 지우개로 피가 날때 까지 피부를 문지르는 자해다
본계, 비계, 부계: 주로 쓰는 계정, 비밀 계정, 예비 계정을 말한다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구나.”
“힘들 때 자해 대신 나를 찾아줄래?”
“우리 함께 힘든 일을 풀어보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너 이거 정신병이야.”
“너보다 힘든 사람 많아.”
“엄마 아빠가 너보다 더 힘들어.”

어려워요. 중독성이 있거든요. 자해를 하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요.”

호주의 청소년 자해 문제 대처

청소년들의 자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호주에서도 지난 10여 년 전부터 청소년 자해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호주 정부는 청소년들의 자해를 통제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10대 소녀의 10%가량이 자해를 경험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청소년들의 자해를 ‘비통하고 충격적인 당면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헤드 스페이스’라는 단체를 조직했다. 25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든지 정신과 전문의나 심리학자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비밀을 보장 받으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마련되어 있다. 호주 전역에 ‘헤드 스페이스’가 100곳 넘게 설치되어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be you’라는 청소년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동참하고 있는 학교가 4400곳이 넘는다. 호주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 자해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다.

‘be you’ 프로그램은 회복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호주 청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상처를 받거나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기르고 있다. 호주의 중학교에서는 수학이나 과학처럼 교과 과목으로 회복력을 가르치고 있다. 회복력 교과서를 살펴보면 문제 상황을 설정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결정하며 그 이유를 토론한다. 학생들에게 미리 대처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자해 청소년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하긴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과 대구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살과는 다른 문제인 자해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해 청소년을 이해하고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루 속히 관련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보급될 필요가 있다.

자해 문제 극복을 위한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도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자해청소년을 위한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부모와 교사들이 있다. 그들은 일과를 마친 이후 밤늦게 모여 청소년들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공부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호소하고 있는 아픔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어른들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어른들은 몰라요”

자해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려움이 바로 이것이다. 청소년들이 자해하는 것을 알게 된 어른들이 좀처럼 따뜻한 말을 건네주지 않는다고 한다. 무엇이 힘든지, 왜 자해를 하는지는 말해볼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저 다그치기만 한다. 이러한 대응은 자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청소년들이 자해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견자들의 첫 대응이 중요하다. 지난해 5월 한 중학교에서는 자해하는 청소년에 대한 인

식 부족으로 학생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다. 교사가 학교 친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몸에 칼뺀하는 X는 반장할 자격이 없다”는 등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가한 것이다. 담임교사의 폭언이 있던 그날 이후 그 청소년의 자해는 더욱 심해졌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교회에서 자해 청소년을 발견한 교사가 그를 불러다 “왜 그랬느냐”고 다그쳐 묻기도 하고, 수시로 아이의 팔을 확인하기도 했다. 격정 때문에 한 행동이었지만 그 청소년은 씻지 못할 상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자해 흔적을 발견하면 무턱대고 혼내지 말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한다.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부모, 교사, 목회자가 자해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따뜻하게 안아주고, 자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면 된다. 또한 자해를 일탈의 통로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로 인식해야 한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구조신호에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한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순간 함께 물어주고, 연고와 반창고로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이다. 비난과 다그침은 문제를 더 힘들게 할 뿐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과 인정’

청소년이 자해를 완전히 멈추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다. 짧게는 일주일일 될 수도 있고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변증법적행동치료(DBT)의 창시자 마이클 흘랜더 교수는 저서 〈자해 청소년을 돕는 방법〉에서 “청소년 자해문제는 몇 걸음 전진과 한 걸음 후퇴를 반복하는 과정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가 자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만사를 포기하고 자녀가 자해를 멈추게 하는 것에 집중하거나, 자녀의 자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자해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안정과 인정’이다.

청소년들은 안정을 얻기 위해 자해를 선택한다. 인간의 몸은 상처가 나면 고통을 견디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는데 이때 일시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안정을 느낄 수만 있다면 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 오감을 이용한 방법도 효과가 있다. 소리, 접촉, 입, 동작을 활용하는 것이다. 잔잔한 음악 듣기, 향초나 입욕제를 활용하기, 마사지, 얼음 먹기, 걷기, 심호흡하기 등이 효과적이다.

인정은 부모들이 청소년들과 소통하는데 가장 필요한 자세이자 태도다. 청소년들의 감정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말의 옳고 그름에 집중하면 대화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의 자해를 알 수 있는 신호 몇 가지가 있다. 긴 옷을 선호하고, 더운 여름에도 긴 팔 옷을 고집한다. 또한 피부 노출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피한다. 베이거나 굵힌 상처, 멍 등이 자주 보이는데 그때마다 넘어졌거나 할린 상처라는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면도기 등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소지하고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신호를 보내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다그치거나 혼내지 말고 천천히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전문 기관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1) 청소년 위기 문자 상담 시스템 ‘다 들어줄 게’
모바일 어플 ‘다 들어줄 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다 들어줄 게’
페이스북 메신저 ‘다 들어줄 게’
1661-5004 번호로 문자 상담

2) 24시간 전화 상담
자살예방핫라인 1577-0199
청소년 전화 1388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3) 공공 청소년 상담기관: 누리집에서 해당 지역 검색
전국 Wee센터 www.wee.go.kr
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ww.kyci.or.kr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무료 상담 가능)

4) 의료기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kacap.or.kr에서 지역 검색

여의도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W공동체 그랜드 오픈예배 오늘(24일) 오후 2시

정치, 문화, 미디어의 중심지 여의도에서 기도와 열정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 W공동체다. W공동체는 정해진 예배 공간이 없어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을 대관해서 예배를 드려왔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곳을 떠나야 했다.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고 어려움도 겪었다. W공동체 지체 모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 기도가 기적적으로 응답되었다. 지난 3월 3일 W공동체가 여의도 정곡빌딩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W공동체는 예배 장소 이전을 감사하는 그랜드 오픈예배를 오늘(24일) 오후 2시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에서 드린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고난이 곧 축복입니다.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W공동체 대표MC 김영아 자매는 “W공동체가 예배 장소를 이전하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간증했다. 김영아 자매가 이토록 가슴 절절하게 간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항간에는 W공동체가 여의도를 떠나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예배 장소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W공동체가 훨씬 더 연합하고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W공동체는 2007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을 대관해서 예배를 드렸었다. 매주 주말마다 음향시설을 세팅해가며 예배와 사역을 이어갔다. 정해진 시간에만 장소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난 후에는 모든 장비를 해체하기 바빴다. 순모임과 홀리스타 새벽예배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여의도 인근 호프집, 식당, 카페 등을 전전했다.

W공동체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의도 복음화’라는 사명을 놓지 않았다. 여의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W공동체는 그 불쌍



W공동체가 남양주 진중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좌), W공동체 예배 모습(우).



한 영혼들을 위해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지난해 초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사학연금회관이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때부터 W공동체 교역자들과 청년들은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김유민 전도사(W공동체)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올해 초까지도 예배 장소를 찾기 못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장소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당장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마땅한 예배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종교 기관에 건물을 임대해주는 것을 꺼리는 경

가 많다. 그래서 W공동체는 하나님께 크리스천 건물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1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던 중에 정곡빌딩을 발견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정곡빌딩의 건물주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 정곡빌딩 건물주는 W공동체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흔쾌히 계약을 승낙했다.

W공동체 멘토 문영기 장로는 새로운 예배 장소를 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청년들의 기도였다고 고백했다.

“W공동체 청년들이 단체 SNS 채팅방에 기도문을 올리면서 새로운 예배 장소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청년들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묻어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그 뜨거운 열정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진선 자매(W공동체)는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분위기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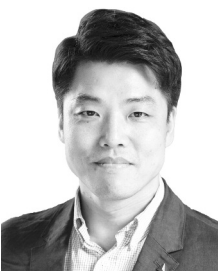
“주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우리만의 공간이 생겨서 너무 기쁘요. 멋진 공간에서 예배드리다 보니 예배 분위기가 훨씬 밝아진 것 같아요. 전에는 홀리스타 새벽예배를 식당을 빌려서 하다가 보니 시선이 분산되어서 예배에 집중이 덜 되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장소에서는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참여하는 청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김윤식 목사(W공동체 담당)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비상할 W공동체의 비전을 소개했다.

“W공동체의 비전은 Window(진리의 창문이 되는 우리), Welcome(나그네를 품어주는 우리), Witness(예수의 증인되는 우리)입니다. W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W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W공동체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전도사역, 인천 동산교회와 남양주 진중교회 어린이 사역, 미혼모사역 등을 하고 있다.

목회칼럼



김윤식 목사
(W공동체 담당)

1974년 여름, 여의도는 민족복음화의 열정으로 달궂어진 청년들로 가득 채워졌다. 당시 여의도에서 열린 ‘EXPLO74 대회’에 78개국에서 온 323,419명이 등록하고, 국가적인 지원 아래 대규모 전도집회가 6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듬해 한국 교회가 33% 성장을 기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다.

한국 교회 부흥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었다. 그것은 이 시대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청년들을 찾으신다. 거룩한 청년세대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통일 한국을 이루시며,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실 것이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그래서 청년세대를 일으키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는 정치, 경제, 미디어의 중심지 여의도에 ‘청년희망 공간 이름 여의도’를 오픈했다. 이곳은 도심의 새벽을 깨우는 홀리스타 새벽예배와 W공동체 주일예배, 주중 바이블아카데미 등 청년들을 위한 훈련, 교제, 예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년세대를 깨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곳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기대된다.

새벽이슬

다윗은 시편 110편 3절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고백했다. 다윗이 청년들을 새벽이슬로 묘사한 것이 참 흥미롭다.

내가 대학생 시절 태백산으로 산기도를 다니던 때였다. 태백산 유일사 입구에서 산을 오르며 초입 오르막길 오른쪽으로 산비탈을 따라 경사진 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그 밭은 농사지를 수 없는 땅인 것처럼 크고 작은 돌들이 고루 퍼져있었다. 태백 지역은 고지대라 물을 끌어오기 어려운 반면 일교차가 커서 돌에 이슬이 잘 맺히는데 그 새벽이슬을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농업이 태백에서 재배되는 고랭지 배추의 식감을 더 아삭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농업

환경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역시 물이 귀하고 일교차가 크다. 이스라엘에서도 태백과 같이 새벽이슬을 이용하는 방식을 농업기술에 적용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은 현재 세계적인 물 부족국가인 동시에 세계적인 농업 선진국이기도 하다. 땅의 물이 부족할 때 공급받는 공중의 물, 그게 바로 새벽이슬인 것이다. 물이 귀해서 강구해 낸 방법이 더 나은 결실을 이루었으니 결국 절박함이 풍요를 이뤄낸 것이다.

청년세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여의도 땅에도 풍성하게 일어나 그 땅을 복음으로 적시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 이 땅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한다.

CGNTV가 찾아낸 아마존 사랑이야기

김철기 선교사의 고백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CGNTV가 오는 29일(금) 개국 14주년을 맞이한다. CGNTV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 365일,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글로벌 선교교육방송이다. 전파를 통해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 CGNTV가 밀림의 본고장 아마존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야기를 찾아냈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까지 CGNTV 안테나가 들어갔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 CGNTV가 찾아낸 아마존 사랑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철기 선교사다. 김철기 선교사이야기는 지난 2013년 CGNTV 개국 8주년 특집 다큐 ‘은혜의 강 아마존’에서 소개된 적이 있는데 지난 19일 치료차 한국에 온 그 주인공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김철기 선교사는 CGNTV와 CGNTV를 후원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강남 모 병원 뺑집에서 만난 김철기 선교사는 암 환자(갑상선암)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다. 아마존 밀림에서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말쑥한 모습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풀어 놓은 아마존 선교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김철기 선교사는 계란과 고등어자반조차 마음껏 먹지 못했을 정도로 가난한 농촌에서 목회를 6년 동안이나 했다. 선교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농촌에서 목회하던 그는 선교를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 그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연한 기회였다. 인도에 선교사가 필요한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김철기 선교사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데 나라도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다. 그런 김철기 선교사에게 하나님은 아주 오래 전 그가 드렸던 기도를 떠올리게 하셨다.

“하나님 저는 잘난 외모도, 뛰어난 설교 능력도, 많은 재산도, 좋은 인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 없으니 하나님께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 길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인도 파송을 생각하고 찾아간 세계선교부에서 “아마존으로 가 줄 수 없겠냐”는 부탁을 해온 것이다. 인도도 모자라 아마존이라니. 기가 막히는 부탁을 받고 당황한 그에게 하나님은 또 다시 그 기도를 떠올리게 하셨다. 결국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목숨을 바치겠다고 순종했으니 인도에 가 죽거나 아마존에서 뱀에 삼켜져 죽거나 원주민의 창에 맞아 죽거나 다름 게 무엇인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다는 다짐으로 도착한 아마존은 그 다짐보다 더 큰 각오를 필요로 했다. 끊임없는 독자들의 공격, 원주민들의 핍박과 저주의식, 독살 위협까지 받았다. 목숨을 건 사투가 벌어지는 아마존에서 김철기 선교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다. 자신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인디오 부족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한 여러 사역들을 준비했다. 학교가 없는 땅에 신학교를 지어서 교

육을 담당하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의료사역을 시작했다. 교회를 지어 복음을 전하는 개척사역도 쉬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보여주셨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갔다.

김철기 선교사는 새벽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거룩해지는 진짜 부흥’이 아마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했다. 그의 헌신과 기도를 보고 들으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부흥의 불길이 아마존 땅을 휩쓸었다. 신학교를 중심으로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나 도시를 뒤덮었고 많은 이들이 성령을 체험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매가 열리지 않았던 망고나무에서 풍성하게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내 아내 허운석 선교사...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의 감격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 김철기 선교사에게 슬픔이 닥쳤다. 사랑하는 아내 허운석 선교사가 폐암에 걸린 것이다.

“아마존에서 누가 더 많이 헌신했는가, 누가 더 아마존 형제들을 사랑했는가 물으신다면 제 아내 허운석 선교사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기 선교사는 아내 허운석 선교사를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한 여인’이었다고 회상했다. 허운석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헌신하기로 했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극구 반대를 했지만 아마존 선교에 뛰어들면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음악을 전공한 것도, 따로 레슨을 받은 적도 없던 그녀가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밤낮으로 기타, 베이스, 건반 등을 독학으로 배우며 헌신했다. 암 투병 중일 때는 “아마존으로 절대 돌아가지 말라”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자신들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한 허운석 선교사



마을에 방문한 김철기 선교사에게 감사를 전하는 원주민(위), 김철기 선교사와 고 허운석 선교사(아래).

의 사랑을 보며 원주민들이 감동했다. 그녀가 천국으로 떠나면서 그곳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동안 김철기 선교사의 가정을 오해하고 괴롭히며 핍박하던 사람들이 선교 협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김철기 선교사는 한 알의 밀알이 아마존에 심겼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한 알의 밀알이 썩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제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먼저 보낸 이후 김철기 선교사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 갑상선암이 발병한 것이다. 지인들은 “평생을 헌신하고 아내까지 아마존에 묻었더니 돌아온 것이 고작 암이냐”며 “하나님께 화가 난다”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김철기 선교사는 달랐다.

“죽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김철기 선교사는 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이 제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적인 축복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지시며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김철기 선교사는 CGNTV 후원자들과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다.

“CGNTV의 모든 후원자분들과 특히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 뿐인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GNTV를 통해 모아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수많은 후원이 방송을 통해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에게로 전해져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마음들을 귀히 받아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제목

1. 아마존 미전도 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2. 새로 건축하는 신학교 건물이 잘 완공되고, 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기를.
 3. 허운석 선교사의 유교설교집 <내가 왕 바리새 인입니다>와 <그리스도만 믿을 때까지>, 김철기 선교사의 참회록 <가슴 찢는 회개>를 통해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 후원문의: 브라질 55-97-3471-1312
한국 010-8397-1312
홈페이지: www.gramin.org

“진심 알아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경기 북부 유일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한꿈학교’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함께 섬기고 기도해야 할 사역지가 너무 많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역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미자립교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선교사와 선교지, 불우한 상황에 처한 소외된 이웃 등이 그 주인공이다. 여기, 우리가 도와야 할 사역지가 있다. 바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한꿈학교’(의정부시 장암동)이다. 한꿈학교는 탈북청소년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한꿈학교에서 발견한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물심양면 섬기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한꿈학교에서 탈북청소년들의 꿈이 영어가고 있다. 사진은 미 대사관 지원 영어회화수업(위)과 심폐소생술(아래)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

“먼저 식사부터 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먹는 밥이에요.”

여기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한꿈학교’. 한꿈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학교 식당밥을 권하는 김두연 교장의 말에 자부심이 흘러넘쳤다. 이날 점심메뉴는 제육볶음이었다. 매콤한 제육볶음에 쌈 채소, 다양한 밑반찬과 후식으로 상식한 딸기까지 뷔페 부럽지 않은 차림에 금세 배가 불렀다.

한꿈학교는 의정부경전철 발곡역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다. 발곡중학교 맞은편 낡은 상가건물 지하1층에 세 들어 있다. 온전한 학교 건물도 없고, 낡고 지하에 있는 터라 비만 오면 곰팡이가 슬고 전기도 나가버릴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도 이곳에서 탈북청소년 35명과 교사들이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다.

한꿈학교는 2004년 세워졌다. 올해 2월 제15회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현재까지 졸업생 90명을 배출했다. 한꿈학교는 대학진학률이 상당히 높다. 취업 및 창업한 졸업생도 있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2015년에는 남북하나재단

우수학교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성과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한꿈학교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못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교가 지하에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지하에 있어서 교육부 승인을 얻지 못했어요. 한 학생이 ‘북한에도 지하 학교는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지하 학교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문제는 또 있다. 한꿈학교는 이시야 말씀(사 61:1~4)을 비전으로 세워진 기독교 학교다. 매일 아침 성경묵상으로 수업을 시작하고, 매주 수요일예배, 통곡기도회(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를 통해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다.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유명 대학교 입학생을 다수 배출하는 등 우수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관심과 기도,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동역자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맞춤 학교

한꿈학교는 그야말로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맞춤 학교이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일대일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은 개인마다 학력 편차가 천차만별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아 기르다 한국에 데려온 아이)의 경우에는 한국말조차 미숙합니다. 그래서 한꿈학교에서는 한국 어부터 배우야 하는 학생부터 초등반, 중등반, 고등반, 대입반까지 나누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교나 사회에 나가서 컴퓨터 사용에 뒤처지지 않도록 컴퓨터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미국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어회화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도 한꿈학교가 도맡아 하고 있다. 굶주리고, 착취당하고, 도망 다니던 험난한 탈북과정을 겪은 청소년들은 대부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결핵은 물론이고 간염, 치과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건강검진부터 결과 설명, 향후 약 복용과 운동처방까지 모두 한꿈학교 교사들이 일일이 도맡아 하고 있다.

한꿈학교에서는 영양상태가 열악하고, 기초수급자가 대부분인 탈북청소년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에서 삼시 세끼를 제공하고 있다. 영양과 맛, 건강까지 모두 챙기기 위해서 끼니마다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다. 김영미 교감은 탈북청소년들의 영양 상태를 고려한 식단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학생들이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일이 허다해서 그런지 처음에는 아침식사를 잘 먹지 못하더라고요. 치킨, 피자, 햄버거를 좋아할 것 같은데 의외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간식을 더 좋아해요. 그래도 지금은 삼겹살을 가장 좋아할 정도로 잘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교통비와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한꿈학교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이 낯설고 물선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학업성취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있다.

한꿈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는 바로 성경이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성경과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한꿈학교 교육의 핵심이다.

“탈북청소년들은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우울증, 신경쇠약, 두통 등을 달고 살아요. 이러한 마음의 병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나면 해방이 돼요. 그래서 한꿈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수업시작 전에 말씀묵상과 기도를 합니다. 교사들도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있고요.”

김일성 주체사상과 왜곡되고 차단된 사회에서 살던 탈북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늘 희망이 있다.

“북한의 철저하고 왜곡된 사상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의 마음이 나무옹이처럼 단단하고 질겨요. 부모의 온전한 사랑도, 제대로 된 교육도, 사회의 보호도 받아본 적 없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내가 겪은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한 계획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밝은 희망이 또 있겠습니까?”

한꿈학교 이렇게 도우면 된다

한꿈학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많다. 먼저 재정 후원이다. 탈북청소년들이 어둡고 음습한 지하 교실이 아니라 햇빛 드는 교실에서 공부하면 참 좋겠다. 물품 후원도 할 수 있다. 급식재료(쌀, 과일, 고기 등)나 책, 의류, 학용품, 컴퓨터 등을 후원할 수 있다. 재능후원도 가능하다.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교사자격증 소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도로 동역해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실하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탈북청소년들과 한꿈학교를 기억해주시고 기도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이 사역은 기도가 아니면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탈북청소년들은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곁에 먼저 보내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꿈학교

주소: 의정부시 회룡로 194 종합상가 지하층
www.greatvision.or.kr
후원계좌: 농협 204017-51-093643(한꿈학교)
문의: 031-874-2156

3.1운동과 한국교회: 개혁신학적 성찰

3.1운동과 기독교의 역할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
나비 상임대표, 숭실
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3.1운동 당시 전국
의 인구는 2,000만
정도였고, 기독교 세
력은 신·구교를 합
하여 3,252개 교회
에 20~30만 명 규모
의 교인으로 인구
대비 1~1.5% 정도의
교세를 형성하고 있
었다. 조선총독부의
통계에서는 2,883개
교회에 355,114명의

신도로 파악하고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가 2019년 2월 20일 공개한 ‘3.1운동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19년 3.1운동 당시 국내외에서 최다 103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으며, 일제의 탄압으로 최다 93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집계는 일제의 기존 자료에 기록된 시위 참여자 58만 명, 사망자 553명보다 최고 1.7배 높은 수치다.

함석헌 옹은 3.1운동에서 다른 종교의 역할도 컸지만 “기독교 신앙 없이는 3.1운동이 없다”고 하였다. 기독교의 역할은 주도적이었다. 한국 기독교인은 3.1운동에 신앙적 결단으로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동자로 나서고 지도력을 제공했으며, 3.1운동 확산의 조직을 제공하고, 통로가 되어 큰 기여를 했다. 교회가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3.1운동은 일어날 수도 없었다. 이 항일 시위의 핵심과 역동 기구는 기독교였다.

3.1독립운동은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의 역할이 지대했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20만 명을 넘지 못했으며, 그에 비하여 천도교 인구는 100만 명을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기독교 인사가 16인(천도교 15인, 불교 2인)이 서명한 것은 종교인구 비율이 아니라 그 영향력의 비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1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역할과 영향에 있어서 기독교는 3.1운동의 초기 조직화 단계의 7개 계열 중 6개 계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최초의 독립선언이라 할 수 있는 28학생독립선언을 후원했다. 민중운동화 단계에서도 전국교회의 조직과 지도자를 제공하였으며 3.1독립선언의 이념도 기독교에 영향 받은 바가 컸다. 기독교를 통해 전해진 자유와 평등 사상의 유입은 수평적 시민사회를 구현하는데 중심이 됐다. 구한말 한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기독교가 일제의 억압통치로부터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자명한 결과였다.

미국북장로교회 한국선교회의 보고는 1914년 현재 1,688명의 장로교 감리교 성직자, 2,300여 개의 예배당, 20만여 명의 신도라고 하였다. 1918년에는 한국선교회와 교회들이 참가한 ‘조선예수교장감연합회의’라는 연



“3.1운동은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 없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약 1.5%에 불과했으나,
3.1운동 주동세력의 약 30%를 차지했다.”

합기기도 발족시켰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교육과 의료사업도 일부 연합하여 활동하였다. 전국적으로 교회와 연계된 학교가 832개나 되었다. 1918년 12월 말에는 개신교인 219,220명, 천주교와 정교회 교인 99,488명을 합하여 총 318,708명이었다. 이들이 3.1운동 때 활동 자원이 되었다. 개신교 교회는 3.1운동 당시 35년의 짧은 역사를 지녔고 작은 세력이었으나,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교단 선교부들의 교육, 의료 활동의 지원과 신앙지도를 받으며 급성장하였다.

3.1운동 당시 한국 교회는 짧은 역사와 미약한 교세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조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장로교회 측에서는 1907년 평양의 장로회신학교 제1회 졸업생 7명을 목사로 장립하고 선교부로부터 독립된 조선예수교장로회 독(獨)노회를 세웠다. 1912년에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구성하였다. 북감리교회는 1901년부터 한국인 목사를 세우기 시작하여 1908년에는 조선연회(Korea Conference)를 조직하였으며, 남감리교회에서도 1918년 조선 연회가 구성되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정부기구를 제외한 조직공동체로서는 가장 크고 잘 연결된 조직과 기구를 형성하게 되었다.

1919년 3월에서 4월 중에 전국적으로 1,214회의 독립만세모임이 있었다. 그 중에서 큰 운동이 일어난 곳이 340회 정도이고, 실제로 체포된 사람들의 종교별 분류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3,373명, 천도교인이 2,283명, 유교가 346명, 불교가 220명, 무종교가 9,304명, 미상이 390명이라 집계되었다. 당시 기독교 신자 수는 천도교인수의 1/12 또는 1/4밖에 안되었지만 체포된 교인 수는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의 비율이 3:2의 비율이 된다.

초기 기독교회당은 애국지사의 거처

일제(日帝)는 한국과 합병을 꾀하려 할 때 명철한 말로 반대했던 명성황후를 자객들을 시켜 시해하였다. 일제는 ‘여우사냥’이라는 작전으로 경복궁에서 잡자던 국모(國母)를 칼로 죽여(1895년 8월 10일) 불로 태웠다. 이 사건 후 고종 임금은 매일 떨며 살았고, 독살당할까봐 밥을 가져오면 개에게 먼저 먹였다고 한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내외는 조선왕실과 돈독한 관계를 가졌다. 언더우드 부인은 명성황후의 시의(侍醫)였으며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정치적 위기 속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고종 황제를 호위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고종 탄신 축하행사를 수행하기도 했다. 명성황후는 생전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과 친숙하게 지냈고, 전도도 받아 천국에 가고 싶다는 고백도 했다고 한다. 고종 임금도 일제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언더우드를 불렀고 상의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각 지역 교회는 애국지사의 집회와 결사의 처소가 되었다. 한국의 기독교는 민족 교회로 발전했다. 교회는 일제 지배 하 절망에 처했던 민족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던 단체였다. 교회는 민족의 열과 그 힘의 맥이었다. 민족의식의 결정과 그 표현의 무대였다. 한국에서는 일제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민족혼의 산실이 되었다. 이것은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의 보호 아래 치외법권적 영역이 되었고, 총회와 연회, 지방회나 노회를 중심으로 총독부의 발길이 닿지 않는 연락망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당시 교회조직은 유일한 전국적 조직체로서 연락망의 구실

을 하게 되었다. 교회는 나라를 잃은 한국인들이 가장 쉽게 모일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교회를 통해 서양의 문물이 교계의 신문 잡지들에 소개되었고, 각종 사회문제와 시국 문제도 논의되었다. 그러한 여건 아래 교회 주변에서 신민회, 조선국민회, 송죽 결사대, 한영서원 비밀결사 같은 항일 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할 수 있었다. 105인 사건의 실체였던 신민회는 서북지방 기독교인의 인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비밀결사였고, 여기에 가담했던 기독교인들이 이후 직간접적으로 3.1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독립선언문이 발표되고 3.1 만세시위가 시작되자 그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4월말까지 격렬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개됐고 거점은 교회와 기독교사학이었다. 기독교가 3.1운동에 적극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3.1운동에 앞서 전국적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었던 점, 종교기관만 유일하게 합법적 집회의 자유가 있었던 점,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기독교가 연결시켜온 점, 일제가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 점,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민족을 일치시키려고 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애국 실천

기독교가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자결주의 사상이 선교사들을 통해 교인들에게 설교로 전해졌고, 총회, 노회, 시찰회, 당회라는 기독교 특유의 조직을 통해 전국으로 일시에 확산될 수 있었고, 각종 유인물을 교회 안에서 등사로 찍어 대량으로 살포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교회는 전국적인 자발적인 민족조직체였다. 3.1운동의 전국적인 확산도 교회들과 교회가 세운 학교들 중심이었다.

3.1운동은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운동이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1.3~1.5%에 불과했으나, 3.1운동 주동세력의 약 30%를 차지했다. 3.1운동에 영향을 미친 동경 28독립선언 역시 주체는 동경 유학생 학우회였지만 핵심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은 16명, 준비과정 핵심인물 48인 가운데 23명이 기독교인이었다.

3.1운동 기간 기소피고인 종교별 통계에 따르면(3월 1일~5월 27일), 기소피고인 총 7,835명 중 기독교인은 22%에 해당하는 1,719명이었으며, 입감수형자도 총 9,059명 중 기독교인이 22.4%인 2,032명(천주교인 53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29만 명, 전체 인구의 1.8%에 불과했던 점을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의 참여와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일제는 기독교 세력을 조선식민지화의 가장 큰 저항세력으로 파악하여 회유와 탄압정책을 펼쳤다. 일제는 조선교회의 세력이 커가고 서구세력과 연계되어 있는 점을 유의하였다(계속).

실행위원장이 보낸 편지

“러브소나타 시즈오카에 와 주십시오”



스리아사노 카즈오 목사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실행위원장)



친애하는 이재훈 목사님과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5월에 열리는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실행위원장 스리아사노 카즈오 목사입니다. 올해 러브소나타가 시즈오카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러브소나타는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진행된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안에는 한국에 대한 응어리가 있었었습니다. 기도회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여러 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사랑으로 응어리가 무너지고 녹아내리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회가 열리는 3일 동안 저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형제자매와 같다고 일깨워주셨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정치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시즈오카에는 일본인들이 영산(靈山)으로 여기는 후지산이 있습니다. 시즈오카의 교회들은 분열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강하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이번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사단에 묶인 시즈오카가 해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위해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형제자매들이 이곳에 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즈오카 기 · 도 · 제 · 목

- 3월 25일(월) 러브소나타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 3월 26일(화) 시즈오카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본 전역으로 퍼지도록
- 3월 27일(수) 시즈오카의 분열된 220개 교회들이 연합하도록
- 3월 28일(목) 모든 협력교회들이 러브소나타를 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 3월 29일(금) 현지 봉사자가 채워지고,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도록
- 3월 30일(토) 리더십포럼, 교회세미나, 가스펠나이트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도록
- 3월 31일(주일)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출연자들을 통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4276	엄주명	수원 서누리	1134362	여지수	여호수아	1134397	김용찬	J4U
1134277	이창수	부천 사랑	1134363	김태현	여호수아	1134398	유주영	J4U
1134278	정지연	수원 서누리	1134364	한호현	여호수아	1134399	주한솔거	J4U
1134279	박삼재	가정사역	1134365	최영민	여호수아	1134400	황순영	S브릿지
1134280	박인수	양지 서누리	1134366	장태준	여호수아	1134408	이정만	대전 남누리
1134282	조호연	이수	1134367	노기현	여호수아	1134421	김상훈	인천 소망
1134283	김혜진	강남A	1134368	강예이	여호수아	1134410	유선화	강동 프라미스
1134285	이순희	여의도	1134369	구현모	여호수아	1134411	이영환	Bridge33+
1134287	정한식	강동 프라미스	1134370	이정수	여호수아	1134412	지미환	Bridge33+
1134288	이찬미	SNS	1134371	김대환	여호수아	1134420	강태욱	수원 남누리
1134289	양은영	강남C	1134372	장윤경	여호수아	1134421	김창원	하늘
1134290	한승희	서초C	1134373	지성현	여호수아	1134423	도상목	강촌
1134291	김은숙	양재	1134374	조재홍	여호수아	1134425	최윤정	서빙고
1134292	강동원	평택	1134375	강현준	여호수아	1134426	정성호	영등포구로
1134293	김은경	용산	1134376	김수정	여호수아	1134427	이가현	Bridge33+
1134294	이창호	부천 믿음	1134377	김상희	여호수아	1134428	하인철	하늘
1134320	추정화	강남B	1134378	문성연	여호수아	1134429	박상민	하늘
1134321	손옥영	가정사역	1134379	조선연	여호수아	1134430	곽상우	W
1134322	신원혜	노원	1134380	한광희	여호수아	1134431	서 혁	영등포구로
1134346	조은아	부천 소망	1134381	정유정	여호수아	1134432	김영숙	영등포구로
1134347	정순희	이수	1134382	문정은	여호수아	1134433	김다인	SNS
1134348	정재경	인천 소망	1134383	박진선	허브	1134434	나희운	SNS
1134349	손상규	인천 사랑	1134384	이민영	허브	1134436	최영빈	SNS
1134350	홍지만	동대문중앙	1134385	박호선	허브	1134437	김선정	SNS
1134351	김종백	송파B	1134386	김수용	허브	1134438	심아람	SNS
1134352	강성진	대전 서누리	1134387	김예찬	허브	1134439	오하준	SNS
1134353	박정미	수원 동누리	1134388	정준원	허브	1134440	정소영	SNS
1134354	장미순	한강	1134389	배서현	허브	1134441	정수민	SNS
1134355	전성복	송파A	1134390	강병규	허브	1134442	이현민	SNS
1134356	김이슬	천양사역공동체	1134391	박세훈	J4U	1134443	김주연	SNS
1134357	임정연	하늘	1134392	정다빈	J4U	1134444	최현명	SNS
1134358	김정수	하늘	1134393	김지연	강서	1134445	이단비	SNS
1134359	이주희	동대문중앙	1134394	신주영	허브	1134446	허재봉	SNS
1134360	김성수	부천 소망	1134395	김신영	J4U			
1134361	이승훈	여호수아	1134396	김대일	서대문			

의사전도집회 ‘Love Touch Concert’

4월 9일 ‘르메르디앙 서울 LL층 다빈치볼룸’

CMN과 전도사역본부 맞춤형도팀이 의사들을 위한 전도집회 ‘Love Touch Concert’를 개최한다. 믿지 않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맞춤형전도집회는 4월 9일 ‘르메르디앙 서울 LL층 다빈치볼룸’에서 막 오른다. 전도 하고 싶은 의사(한의사 포함), 부부 여러 커플을 초청할 수 있다.

Love Touch Concert에서는 이재훈 담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색소폰 연주자 대니정, 가수 이무송·노사연 부부,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 남성4중창 CRUX가 출연한다. 양성민 목사(CMN 담당)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치유하는 의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뜻 깊은 맞춤형전도집회에 믿지 않는 의사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온누리교회, 의료기관에 위촉패 전달

동작공동체와 난민사역 중인 병원과 약국

온누리교회가 지난 22일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에서 동작공동체와 동역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위촉패를 수여했다.

방배프라자 온누리약국, 중국동신한의원, 서울시 동작구 중앙약국, 서울시 동작구 서울

안과, 예사랑재활의학과, 기분좋은한방병원, 부천 온누리정형외과에 감사인사와 함께 위촉패를 전달했다. 위촉패를 받은 병원과 약국은 동작공동체가 난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의료기관이다.

크리스천 CEO 리더십 스쿨 개강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 리더들을 세우는 ‘크리스천 CEO 리더십 스쿨’ 1학기가 4월 30일 개강한다. 크리스천 CEO 리더십 스쿨은 2학기(총 20주간) 과정이다. 1학기 4월 30일~6월 25일, 2학기 9월 17일~11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크리스천 CEO 리더십 스쿨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 김하중 장로(前 통일부 장관), 라비 재커라이어스 목사, 이남식 장로(국제미래학회 회장), 박현우 대표(이노레드), 가수 선, 정진호 장로(웰스인베스트먼트 회장), 정일영 대표(인천공항공사 CEO), 강신익 장로(CCF 회장) 등이 강의한다. 문의: 010-9701-1406

부천 한사랑공동체 아웃리치 간다!

부천 온누리교회 한사랑공동체(탈북민을 위한 예배공동체)가 오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후쿠오카로 아웃리치를 간다. 탈북민 21명과 스태프 18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사랑공동체는 일본 성도들과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눌 예정이다.

김혜경 목사(한사랑공동체)는 “이번 아웃리치가 탈북민들이 선교의 사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한사랑공동체 아웃리치에 많은 관심과 후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 탈북민 성도는 “일본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3333-09-5197605 (탈북민김혜경)

남양주 ‘영성훈련학교’ 참가자 모집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오는 3월 28일부터 5월 23일(고난주간 제외)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는 영성훈련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영성훈련학교는 청년들의 지성, 영성, 감성 함양을 돕는 청년리더십훈련이다. 문의: 031-565-9686

인천 ‘이주민선교학교’ 개강

인천 온누리교회가 오는 3월 31일 제너럴 믿음홀에서 ‘이주민선교학교’를 개강한다. 이주민선교학교에서는 효과적인 선교방법과 전략을 가르쳐준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전화(032-437-9686)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이다.

서빙고 3월 만남의 잔치

날짜: 3월 31일(주일) / 시간: 오후 5시~7시(식사제공) /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시온홀(B2)
대상자: 1월 11일~3월 13일까지의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가정사역 곽현지 김성준 안광호 이지원	노원 김진 김태희 배상우	동작 김덕준 김영일 김태현 성주영 예상국 이윤주 황시에	신동철 황다경	이지현	이창현A	용산 김창봉 이상엽 천길배 황숙희	이초 김봉주 서영민	이은경	도지혜
관악금천 김경석 노권일 문지은	동대문중앙 박종우 이은관 장윤수 최정희	서대문 권세웅	성북 강영순 권유현 송윤궁	성북 강영순 권유현 송윤궁	여의도 홍두표	영등포구로 김성필 심재일 이수미	일산 장은비 최영자	OCC 이슬기 황의천	배현진 오거늘 이남주 이혜민 정현진 최보용 최재학 최호용

■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이지원 성도(가정사역공동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

결혼생활 7년 동안 나와 남편은 대화가 통하지 않아 자주 싸웠다. 젊은부부학교에 참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는 전혀럼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답답하게 살기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젊은부부학교를 신청했다.

젊은부부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얼굴도 모르는 조장님과 통화하면서 나는 “남편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말만 잔뜩 늘어놓았다. 그런 나에게 조장님은 “그래요 사람은 원래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셨다. 가정생활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있던 나에게 조장님의 말은 큰 도전이 되었다.

젊은부부학교 1주차가 시작되는 날에도 어김없이 남편과 싸웠다. 나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며 남편에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속에 있는 말을 전부 쏟아 부었다.

2주차가 되자 나는 조장님과 또 다시 긴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젊은부부학교 스태프들은 왜 이렇게 재미있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아파해줄까’라고 생각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물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젊은부부학교에서 진행되는 퍼플퍼즐 시간을 통해서 나와 남편이 그동안 왜 대화가 되지 않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는지를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신중형’이고 남편은 ‘관계형’이다. 신중형과 관계형의 만남은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하면 더없이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점을 비난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행동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다.

3주차에 진행됐던 내적치유를 통해서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소소한 것들을 물어보고 의논하지 못했던 것이 나의 원가족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젊은부부학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다. 나의 잘못된 점을 비추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또 우리 부부를 끝까지 잘 섬겨주신 조장님 부부에게도 감사드린다.

일정: 4월 6일~27일

문의: 010-3282-2641

■ 서초C공동체 아웃리치 간증



/ 이진영 집사(서초C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곳

서초C공동체가 지난 3월 4일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영광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번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영광교회 방문은 지난해 5월 공동체 아웃리치에 이어 두 번째다. 작년에 아사히카와 아웃리치를 다녀온 이후 가진 모임에서 내년에도 아사히카와를 방문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말이 점차 현실화 되어서 작년 말에 영광교회를 재방문하기로 결정했고 날짜는 3월 초로 정해졌다.

하지만 막상 재방문 일자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들에게 갈 수 없는 사정들이 생겼다. 함께 가기로 한 13명에게도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다. 협심증 증세가 심해 심장수술을 한지 보름도 안 된 남편이 있는 집사님, 첫 강의를 휴강하고 참석해야 하는 집사님도 있었다. 거기에 찬양하는 분들이 주축이 된 아웃리치여서 찬양을 안 하는 분들은 ‘내가 가서 뭘 하지?’, ‘내가 꼭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 13명이라는 적은 인원이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영광교회에 가서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

갔다.

여러 번 모이면서 아웃리치를 열심히 준비했다. 우리의 준비는 미약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일하게 하셨다. 자라나는 새싹인 중고등부와 청년부에게 5분 메시지를 전해 달라는 요청을 예배 전날 듣고 두 집사님이 밤새 준비해서 감동 있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그 학생들이 회중 찬양을 통해 우리의 방문을 환영해 주어서 큰 힘과 격려가 되었다. 우리의 위십 댄스 찬양을 보고 다케이시라는 형제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선교사님을 통해 들었다. 작년보다 더 한국과 일본 성도들이 연합되고, 더 큰 도전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아웃리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년 아웃리치에서 전도 대상자가 83명이었는데 지금은 155명으로 늘었고, 사사가와 목사님(아사히카와 영광교회 담임)이 혼자 하던 새벽예배를 이제는 도모코 사모님과 장남 요시히로 군이 함께 진행한다고 한다. 지난주에는 기록적으로 새신자 17명이 참석했다고 선교사님이 전해 주셨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조에스터 선교사(중동 H국)

참으로 멋진 하나님

사역관련 포럼이 중동 A국에서 열렸다. A국까지 두 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예상보다 직항 항공료가 비쌌다. 저가항공을 찾아보니 중동 B국을 경유하는 것이 있었다. B국에는 그 전에 교제하던 무슬림 출신 개종자 A가 있다. 현재 A는 종교난민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A는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있던 구도자였는데 성경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만나게 되었다. 1년 정도 우리와 교제하며 성경공부를 하다가 결국 집에서 그 친구의 변화를 알아버렸다. 그로 인해 A는 급하게 자신의 나라와 가족을 떠나야 했다. 다행히 교회의 도움으로 종교난민 신청을 했고, B국에서 2년 가까이 지내고 있다. A가 갑자기 떠나고, 보안문제로 자주 연락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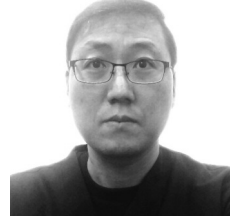
B국에 도착해서 A를 만나보니 작년 3월 수술 때문에 잠시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밝고 몸도 건강해 보였다. A는 B국에서 난민으로 지내며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지치고 속상하고 실망도 했었다. 그럴 만

도 한 것이 예수님을 믿은 지 일 년 만에 혼자 떨어져 지내야 했으니 아직 영적인 어린이와 같은 A가 감당하기에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A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기도 응답하신다’고 고백했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때를 위해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고백이었다.

그 사이 A는 교회에 교제하는 그룹이 생기고, 성경공부모임과 예배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역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지금 A는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서 성경공부를 하고,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전도법 강의를 신청해서 시작할거라고 했다. A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아랍 개종자들 중에 방송으로 전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A는 이를 통하여 선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주님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기도하게 하였고, 주님께서 먼저 일하심을 또 경험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참으로 멋진 분이!

■ ‘와이무슬림’을 마치며



/ 임종훈 성도(하모니공동체)

그리스도를 무슬림에게
보여줘라!

이슬람과 무슬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혼란스러운 마음이였다. 이슬람은 공포의 대상이지만 무슬림은 왠지 마음을 아리게 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안에 깊이 뿌리박힌 ‘이슬람 포비아’였다. 무슬림을 사랑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공포심이 조금 누그러들었다가 이슬람의 악마적인 모습을 볼 때면 이슬람 포비아가 또 다시 견고해졌다. 한마디로 나는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가득 차 있었다.

와이무슬림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스쿨 중에서 제일 흥미로웠다. 첫 시간은 이론적, 교리적이었다면 횡수가 더해질수록 내용이 깊어졌고 실제적이었다. 강사들이 무슬림들과 만나오면서 고민하고 몸부림쳤던 그 생생한 경험을 잘 전달해주셨다. 내 무지와 오해도 조금은 나아졌으리라. 이슬람은 분명 무슬림들이 하나님께로 못 가게 막는 장애물이 가득한 종교였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이슬람의 모든 장애물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한국에도 무슬림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인 개종자도 늘고 있다. 이제 무슬림

은 막연한 공포의 대상으로 남겨 두면 안 될 시점이다. 무슬림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회생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그게 내가 가진 무슬림에 대한 해답이 아닐까!

수업을 들으면서 진짜 무슬림을 한 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그 소원이 이뤄졌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아랍어예배에서 하나님은 정치적 난민인 이집트 무슬림 형제를 만나게 해주셨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데 그 형제가 마침 내 앞에 앉았다. 짧은 영어와 주변 분들의 통역으로 대화를 나눴다. 역시 무슬림은 그냥 사람이었다. 이 일을 통해 무슬림을 더 만나봐야겠다 마음먹었다.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무슬림 형제를 섬기고 싶다고 했다. 답은 긍정적이었다. 앞으로 어디까지 길이 이어질지 모르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무슬림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모든 선교사님들 강의의 결론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무슬림에게 보여줘야 한다”였다. 무슬림 한 영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장로칼럼

세 번의 영적 반전(Plug-in)



송중환 장로
(가정사역공동체)

나는 예수가 넘도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세 번의 영적 반전(plug-in)을 경험했다. 첫 번째 영적 반전은 중학교 3학년 봄방학 때였다. 당시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학생부흥회에 갔다. 학생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헤어지고 혼자 어둡한 골목길에서 시원한 밤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걸어갔다. 그때 ‘부름 받아 나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찬양을 신나게 불렀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큰 은혜로 다가온다. 나의 영혼이 강박해질 때마다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영적 반전을 경험한다.

두 번째 영적 반전은 2001년 예수제자학교(JDS) 저녁반을 다닐 때였다. 그 기간은 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관계 충만함을 누리 는 시간이었다. 예수제자학교에 참여하기 전 나는 바쁘고 분주하게 생활했고 매우 교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위에 ‘예수제자학교 입학원서’라고 쓰인 서류봉치가 올려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내가 나를 위해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당시 직장생활로 바쁜 나머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책상 위에 놓여있는 예수제자학교 입학원서를 다시 발견했다. 나는 영적인 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신청서의 빈칸을 열심히 채워갔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제자학교를 졸업한 이후 처음으로 순모임에 참여했다. 그때부터 세상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대신 금요일 순모임에서 밤새도록 순원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나눴다. 순모임에 익숙해지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예

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의 기도 때문이었다. 아내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였다. 결혼 후 아내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지속적으로 권면했다. 아내는 계속되는 나의 요청 때문에 교회에 출석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기 시작했다.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났다. “나 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아내를 통해서 선명하게 깨달았다. 아내의 기도는 중년 이후 나의 믿음이 보다 체계적이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영적 반전은 공동체와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경험했다.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락 장로 피택이 되었다. 예수제자학교와는 또 다른 격과 모양의 장로사관학교 1년 과정을 받게 됐다. 그 시간을 통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 나는 장로사관학교에서 따뜻한 감성과 절제된 창조성, 아름다운 팀워크를 배웠다. 나는 죽고 나의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나는 변화를 체험하게 됐다. 오직 공동체의 본이 되어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장로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로장립을 하게 됐다.

장로로 피택 된 당시에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겠다고 결단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숙함을 귀하게 사용해주셨다. 어느덧 장로 10년차가 되었다. 결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간섭해 주셨다. 글을 쓰고 나니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나의 세 번의 영적 반전은 미숙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였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잠 16:9).

권사칼럼

매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노정희 권사
(강남A공동체)

주님을 만난 지 어언 40년이 넘어간다. 인생에서 상당히 긴 시간이다. 주님을 만난 이후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삶의 우선순위와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앞지라뒤지라하는 혼돈의 과정을 겪었다.

아직도 내 안에는 두려움과 완고함이 살아있으며 이 나이에도 처음 겪는 듯 답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고 있다.

50, 60대가 되면 웬만한 인생의 답을 알고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와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고백하게 된다. 몇 년 전 삶의 폭풍이 찾아들고 평안한 시간이 찾아왔다. 열심히 교회 사역에 참여하며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는 나날이었다. ‘이렇게 늙어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던 때에 가족들에게 건강 이상이 생겼다. 같은 해에 사랑하는 가족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이상이 찾아 온 것이다. 충격이 컸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생각했다.

4복음서를 읽으며 주님이 병을 고치시는 부분을 다시 되새겼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일어나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 가정에게도 은혜 베풀어주시길 간구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고백했다. 낙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다. 처음 내게 찾아오셔서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고 고백하신 그 사랑의 음성이 다시금 내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다. ‘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면 나와 내 가족은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하는 소망이 생겼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은 사람을 통해서 왔다. 목사님의 위로와 말씀 속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염려를 덜어냈다. 함께 기도하고 옆에서 변함없이 있어주는 믿음의 가족들 덕분에 안정감을 되찾았다. 공동체, 순에서도 동역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왔다.

지금 돌이켜 보니 매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모든 보호와 위로의 품에서 한 시도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이다. 이제 내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지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내 마음에 새겨주시고 수면 습관도 바꿔주셨다. 늘 새벽 1~2시에 자곤 했는데 새벽기도에 참여하면서 저녁 10시에 잠이 들기 시작했다. 새벽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게 점점 익숙해졌다. 작년에는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예전의 습관으로 금방 돌아가 버렸다. 그런데 올해에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난 뒤에도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래된 기도, 새로운 기도, 새로운 질문들을 올려드린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내 마음에 답을 담아주신다. 아직도 어려운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평안을 누리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사 41:10).

신앙에세이



최성민 목사
(허브공동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명색이 대학부 목사니까 현 시대적인 질문이나 영적인 문제들에 관한 질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질문들은 잘 하지 않는다. 오직 “어떻게 그렇게 살을 뺐나요?”라는 질문만 한다.

나는 무거운 몸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2년 전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여름 선교지에서 경비행기를 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날 이후 매일 새벽마다 예배에 가기 전 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체중 20kg를 감량했고 아직까지 그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내가 살을 빼면서 깨달은 몇 가지 진리가 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조금 교만한 발언일지 모르지만 나는 원래 관찮게 생겼다는 사실이다. 살을 빼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별명을 ‘굵지 않았던 복권’이라고 불렀다. 실제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턱 선이 보이고, 옷맵시도 조금 생기고, 굵었던 어깨가 퍼지면서 키도 조금 자랐다. 두 번째 깨달음은 인간의 몸은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살이 빠지면서 몸에 숨겨져 있던 근육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한참 운동하던 시절 트레이너에게 “복근은 어떻게 생기나요?”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다. 트레이너는 이렇게 대답했다.

“복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이 그 복근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가지고 있다는 말에 한 번, 더 빼야 한다는 말에 두 번 충격을 받았다. 뜬금없이 다이어

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멋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다만 욕심과 이기심, 교만과 질투 등 부정적인 죄의 지방들이 영혼에 달라붙으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지고 있다. 이러한 영적 비만 현상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영혼의 비만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내 영혼의 지방들을 빼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포기한 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인정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대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무엇을 빼야 하는가? 다이어트에 는 언제나 기본적 원리가 있다.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빼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남기고, 사단이 기뻐하는 것은 빼야 한다. 물론 잘 안 된다. 육신이란 영혼이든 해가 되는 것은 다 달콤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지 않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슬로건이 한동안 광고계에 유행했지만 사실 맛있게 먹는 것은 거의 대부분 고칼로리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가운데 분노, 욕심, 이기심들은 달콤하게 여겨지지만 그런 것들이 영적 고도비만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영향력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말씀의 체중계 앞에 날마다 서고, 기도의 바벨을 들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델 삼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멋진 영혼의 몸뚱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영혼의 몸뚱이 되셨나요?”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한나의 기도

한나가 하나님께 쏟아내는 영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아들을 온전히 바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아들이 목표였고 하나님이 도구였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아셨기에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잃어버린 제사장 '엘리'

사사시대의 깊은 암흑기의 절정은 엘리라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와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자’는 다른 곳에서 왕좌, 보좌 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의자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의 위치, 신분, 직무를 가리킵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구약 율법을 보면 제사장이 앉아서 직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직무를 행할 때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는 영적 운동력과 영향력이 없고, 정제된 상태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장은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한나라는 여인과 하나님께로부터 직무를 받았지만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던 엘리라는 지도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 법궤를 보낸 후에 “엘리는 하나님의 궤로 인해 마음을 졸이며 길가 한쪽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항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 엘리의 무지가 나타납니다. 고통 속에서 울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신음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엘리는 ‘독한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력의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16절).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헌신한 대로 엘리 제사장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한나는 엘리가 영적 영향력이 미약해도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하라하실 것이요’”(17절).

엘리가 축복했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엘리가 중매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가 한나의 태도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한나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지만 제사장 엘리를 통해 전해들은 강복의 선언을 응답받은 줄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비록 제사장 엘리의 영적 영향력이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주어진 강복의 선언을 믿은 것입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따지 않았습니다”(18절).

한나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강복 선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사역자를 당시

제사장과 동일시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의 원리로 말하자면 여전히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제사장 엘리와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부정한 것을 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은 밝혀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성도가 있고, 그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자기 기준입니다. 한나는 엘리의 강복선언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고, 자신을 괴롭히는 누군가와 다투지 않고 모든 괴로움을 오직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엘리가 영적 영향력이 부족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신 강복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올 사무엘을 준비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영적 어머니로 연단하셨습니다. 고통이 긴 이유는 그 만큼 깊은 기도를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통이 강한 만큼 깊은 기도와 오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 지극히 개인적일 지라도 개인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와 역사의 고통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곽상학 목사
(온누리교회 협력 목사, 새롭중학교 교사)

화제작이었던 드라마 ‘SKY 캐슬’의 흥행을 추동한 견인차는 ‘임시’라는 소재였다. 쏟아지는 시청 반응의 행간에서 대한민국 임시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못 땅에서 거주했다(창 4:16). 그는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는데, 그 성에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이니 이름하여 ‘에녹성’이라 하였다(창 4:17).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못 땅에서 성을 쌓고 에녹 캐슬에서 나름대로의 행복을 구가하고 있는 가인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다. 아담은 가인을 낳고,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창 4:18). 가인의 계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아담의 7대손 ‘라멕’이었다. 성경은 라멕을 아다와 쉴라라는 두 여자를 아내로 맞

이한 남편이자, 가족지는 자의 조상인 장남 야발, 수금과 토크를 잡는 조상인 차남 유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삼남 두발 가인, 직업은 없어 ‘즐거움 인생’이라는 뜻을 가진 장녀 나아마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다. 라멕은 3남 1녀를 나름대로 특기적성을 잘 고려하여 진로 지도와 행복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라멕과 그의 두 아내는 그렇게 에녹 캐슬에서 네 자녀들과 함께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성경은 라멕의 인성(人性)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 입을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 버렸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차 없이 소년을 죽였으며, 심지어 자신의 조상인 가인에게 벌을 내린 하나님한테까지 공개적으로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창 4:23-24).

아담의 셋째 아들 셋(seth)은 장성해서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의 이름을 불렀다(창 4:26).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절망의 계보가 셋의 가문을 통해 다시 회복된 것이다. 셋의 계보는 창세기 5장에 자세히 설명된다.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

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야벳을 낳고, 야벳은 에녹을 낳았다. 셋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담의 7대손 에녹은 공교롭게도 가인의 가문이 살고 있었던 에녹 캐슬의 이름과 동명이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셋의 후손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저 유명한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의 4절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간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며 다짐인가. 에녹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같이 걸었던 동행의 아이콘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들려올라간 에녹의 365년 인생은 하나님이 온전히 카운트하신 인정받는 삶이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히 11:5).

하나님과 동행한 위대한 에녹의 믿음은 증손자 노아에게까지 상속되어 믿음으로 준비한 방주 덕분에 전 지구적으로 임한 대홍수 심판

에서 셋의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에녹 캐슬 안에서 자신들의 행복을 갈구하던 모든 가인의 후예들은 물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근거하고, 천상의 도성은 자기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근거한다. 전자는 자기 자신 속에서 영광을 구하나, 후자는 양심의 증인이신 하나님에게서 그의 가장 높은 영광을 구한다”고 말했다. 나의 인생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성공의 캐슬에 갇혀 주의 바벨탑을 쌓으며 갈 것인가? 아니면 하찮은 나의 발걸음에 기꺼이 발맞춰주시는 하나님의 보폭(步幅)을 감사하며 동행할 것인가? 이제 남은 것은 나의 선택이다.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한 모세의 인생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고 결단한 것은 어쩌면 이전 세대는 다음세대에게 허가된 교사라는 사실이 입증된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은 보고 따라한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보 하나로 섬터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꾸방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3월 21일(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골프장 마당 주일 주자안내

내용: 예배 중에는 입출차 금지(예배 중 차

량 이동 불가), 종일 주차 불가(다음 예배 성

도들을 위해 예배 후 출차)

실시: 4월 첫 주일부터

아랍어예배 반주자 모집

일시: 매주 주일 오후 1시 반~4시

장소: 서빙고 B102호

모집: 피아노, 기타 등

문의: 02-3215-3661

알콩달콩부부학교(두란노어머니학

교) 분부6기

일시: 4월 6일, 12일~13일(토요일, 금~토 1

박2일)

장소: 과천교회, 포천 더 생명나무집(경기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150-16)

강사: 이승준, 송진숙, 김성목, 한은경, 한수

성, 김금숙

회비: 20만원(우리는행 1005-381-711002)

접수: 02-2182-9114, www.mother.or.kr

온누리 남성성교함창단 단원모집

시간: 매주 화 오후 7:2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을

준비: 찬송가 1곡(자유곡)

문의: 신준환 성가사(010-5304-7039)

홈페이지: http://www.ommc.kr

안산 캄보디아어예배 한국어 교사 모집

한국어교실: 매 주일 오후 1:30~3:00

문의: 김지애 선교사(010-7181-4078)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쁨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총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CGNTV
개국 14주년성령 안에서 더 멀리 더 가까이 **14**
개국 14주년

3.1운동 1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나쁜곳에서 피는 봄

작고 연약했던 여인들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어난 그날의 이야기

3월 31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방송 내레이션: 배우 김혜자

100년 전,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실에서 울려 퍼진 만세 소리와
이역만리에서 민족을 위한 희생으로 독립을 일군
기독 여성 독립운동가의 믿음을 마주합니다.

